2026.10.25. 연중 제 30주일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폴더 38번>	<폴더 39번>	<폴더 21번>	<폴더 15번>
하느님의 사람	축복송	아버지 뜻대로	꽃

제 1독서 | 탈출기 22,20-26

화답송 |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제 2독서 | 테살로니카 1서 1,5-10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22,34-40



<오늘의 독서와 복음>

<제 1독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20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21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22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23 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24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25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26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제 2독서>

형제 여러분, 5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6 또한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7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모든 신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8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하여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9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살아 계신 참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10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때에 34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35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36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37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38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39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40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There is in our Community a Sister who has the faculty of displeasing me in everything, in her ways, her words, her character — everything seems very disagreeable to me. And yet, she is a holy religious who must be very pleasing to God. Not wishing to give in to the natural antipathy I experienced, I told myself that charity must not consist in feelings but in works.

Then I set myself to do for this Sister what I would do for the person I loved the most. Each time I met her I prayed to God for her, offering Him all her virtues and merits."

— St. Thérèse of Lisieux, Story of a Soul, Chapter X.

"우리 공동체에는 모든 면에서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수녀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수녀님의 행동과 말과 성격, 모든 것이 내게 거슬립니다. 그렇지만, 그 수녀님은 하느님께 매우 사랑받는 거룩한 수도자이지요. 내가 느끼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기에, **나는 사랑이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 줄 법한 일을 그 수녀님에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수녀님을 만날 때마다 하느님께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수녀의 모든 덕행과 공로를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겸손, 나를 비운 자리에 타인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태도 - Fr.심재현 치릴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1700항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느님의 참행복에 대한 소명 안에서 완성된다. 인간은 마땅히 이러한 완성을 자유롭게 지향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적 행위로, 하느님께서 약속하시고 양심이 증명하는 선을 따를 수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인간은 자신을 형성하고 내적으로 성장한다. 인간은 육체적 생활과 영적 생활 전체를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재료로 삼는다."

이러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을 통해 육체적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 전체를 성장시킬 수 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일들을 귀찮고 불편하게 여기며 제쳐 두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특히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타인에 대한 불편한 마음, 그들과의 크고 작은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마음과 갈등 속에서 어느새 우리의 말은 타인에 대한 험담으로 흘러가기 쉽다. 어찌 보면 별것 아닌 일 하나가 오래도록 마음을 무겁게 하고, 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어려움은 대개 자신의 자존심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 생명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겸손은 라틴어로 '후밀리스 humilis'라고 한다. 이는 '후무스humus', 즉 대지에서 비롯된 단어다. 대지는 인간이 두 발을 딛고 사는 곳이자 가장 낮은 곳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심지어는 생명까지 베풀어 주는 장소다.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겸손은 '받아들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상대방이 나와 맞지 않아서 그렇다.", "저 사람은 자신만 안다.", "참으로 꼴불견이다.", "예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다."라는 식으로 평가하고는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평가는 다름 아닌 자신에게서 비롯된다. 나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혹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나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험담하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그가 나에게 맞춰야 할 이유는 없을뿐더러, 그가 아무리 거슬리고 우스워 보일지라도 그의 진짜 속내는 하느님만이 알고 계신다.

예전에 독일의 바이올린 장인 마틴 슐레스케의 《가문비나무의 노래》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작가는 가문비나무가 부드럽고 연해서 악기를 만들기에 더없이 좋은 나무이지만, 모든 개체가 다 같은 성질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어떤 것은 수분이 많고, 어떤 것은 생각보다 너무 연하며, 또 어떤 것은 거칠고 단단하기에 악기로 가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악기를 만드는 장인들은 나무마다 다른 특성을 이해하고, 그 재질에 맞춰 가공하여 훌륭한 소리를 내는 악기를 완성한다고 한다. 나무가 장인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장인이 나무에 맞추어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가문비나무와 장인의 이야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장인은 나무의 결을 거스르지 않는다. 나무마다 밀도와 탄력, 결의 방향이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차이를 지우기보다는 이해하려 한다. 하물며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상대방이 나와 맞지 않다."라는 말은 인간이 지닌 교만을 잘 나타낸다. 교만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원인이며, 영적 성장의 큰 걸림돌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교만을 죄의 뿌리이자 근원으로 여긴다(로마 1,18-32 참조). 그러니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겸손일 것이다. 겸손은 나 자신을 비우는 데에서 시작한다.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마음에 공간을 남겨 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공간에 타인에 대한 사랑을 차곡차곡 쌓기 시작한다면, 이는 영적 성장의 좋은 재료가 될 것이다.

공지 사항

* 오늘 세례성사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분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양현희 첼리나, 유아인 클레어, 오성배 헨리코
서정환 사도요한, 허린 보나, 신정인 글로리아
차진아 안젤라, 신미란 소화데레사
구인숙 메리 맥킬롭, 이효령 에멜린

1. <여정 시즌 9> 성경 나눔 온라인 모임 안내

- 화요일 저녁 7시 / 갈라티아서

2. <여정 시즌 10> 영적 독서 온라인 모임 안내

다음 모임에서는 기도에 관한 로버트 배런 주교님의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책 주문을 위한 수량 파악을 위해, 모임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성당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채널 채팅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책을 따로 읽고 싶으신 분들께서도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1월 식사 및 간식 나눔 안내

- 11월 1일 : 식사 나눔
- 11월 15일: 간식 나눔

4. 11월 사목회의 안내

11월 8일 -미사 후 교육관에서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노력이 맺은 열매를 보고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닌, 우리의 미소한 덕행에서 생겨나는 열매를 조용히 음미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 성녀 소화데레사

| 공동체 기도 지향

***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10월 축일자들을 위하여>

- 안윤경 소화데레사 (10.01) - 박가연 소화데레사 (10.01)
- 김인국 프란치스코 (10.04) - 조휘원 프란치스코 (10.04)
- 남궁윤하 유스티나 (10.07) - 박주현 타대오 (10.28)

*** 교황님의 이번달 기도 지향**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하여>

교회 전체에 정신 건강에 대한 사목적 돌봄이 자리 잡아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낙인과 차별을 이겨내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 봉헌금 & 교무금 | (10월 17일 ~ 10월 23일)

봉헌금	$ 225			
교무금	$ 810			
구민식	서미숙	신미란	안영규	양명식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전인철
정은영	주정자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퀸비얀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10월 공동체 실천 |

잠들기 전 감사한 일 하나 생각하기
그리고 주모경 바치기